

옛 인화학교 부지에 장애인 전용 수련시설

전국 최초...인권기념관·장애 체험장 등도 갖춰
광주시, 장애인 복지 인프라·건강권 보장 확대

광주시가 옛 인화학교 부지에 전국 최초로 장애인 전용 복합수련시설을 건립하는 등 올해 장애인 복지 인프라를 대폭 확대한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비 지원을 받아 옛 인화학교 부지에 전국 최초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완비된 장애인 전용 복합수련시설을 건립한다. 1만8037㎡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는 복합수련시설은 객실, 목욕장, 대강당, 세미나실, 프로그램실, 소극장, 운동장, 힐링숲 등을 비롯해 인권기념관과 장애 체험장도 들어설 예정이다. 광주시는 상반기 중 사업계

획 승인과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기본설계에 들어간다.

또 장애인들의 교류와 소통, 연대공간 마련과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 등 지원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장애인회관 건립도 추진한다. 지난해 말 발주한 장애인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오는 6월까지 완료하고 건립부지 마련과 후속 절차 등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지역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모사업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광주시는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과 지

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공모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과 관련해 광주시는 자문단 의견 수렴과 부지 확정 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 중 복지부 공모안이 확정되면 위탁법인 선정 후 공모 신청서를 제출한다.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장애인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사업은 1월 중 보건복지부의 사업설명회를 거쳐 공모안이 확정되면 위탁기관을 자체 선정하고 공모에 참여한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지역 내 장애인 건강증진사업 연계·지원 등을 위한 보건의료복지 네트워크 구축, 검진·재활 등 의료서비스 제공, 여성 장애인 임신·출산 지원, 의료종사자 교육 등의 역할을 한

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공모를 통해 3곳을 지정한다.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를 위해 시설·장비 및 보조인을 갖추고 장애인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화 건강검진기관은 올해 20곳을 지정한다. 지정기관은 시설 개보수를 위한 시설장비비와 중증장애인 검진 건당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2만6980원)를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광주시 김일웅 복지건강국장은 "편의시설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장애인 인권신장과 사회참여 활동 증진 등 장애인들의 복지가 향상되도록 앞장서겠다"며 "장애인화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도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미국 쉿다운에도 비자 업무 정상 진행
7일 오전 주한 미 대사관 앞에 시민들이 비자 인터뷰를 위해 줄지어 서 있다.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대치로 인한 미국 연방정부 쉿다운 사태가 또다시 주말을 넘기며 역대 최장 기록을 향한 수순을 밟고 있지만 주한 미국대사관 측은 비자 발급 등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광산구 주민들 “황룡강 장록습지 보호구역 지정 안된다” 반발

축구장 등 편의시설 중단 우려
“광주시-환경부 위치 변경 협의”

광주 광산구 주민들이 황룡강 장록습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환경부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 설치하려던 축구장 등 주민 편의시설 조성사업이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지역에서는 생태학적 가치가 높은 도심 습지도 보호하고 주민들

의 편의 시설 등도 설치할 수 있도록 일부 습지 보호구역의 위치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황룡강 장록습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거쳤으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장록습지가 국내에 흔치않는 도심습지로서 보존가치가 높은 만큼 주민들을 적극 설득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주민들은 해당 구역에 각종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10억원의 국비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갑자기 보호구역이 지정되면 관련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장록습지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현재 황룡강 둔치에 추진중인 축구장을 비롯해 주차장 등은 조성할 수 없게 된다. 지난 2017년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배정받아 수립한 '장록습지 인근 하

천기본계획'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지역에서는 광산구 지족동 210-31번지 황룡강 둔치에 익산청이 조성 중인 '서봉파크골프장' 건너편을 보호구역에서 제척시킬 경우 장록습지도 보호할 수 있고 주민들의 요구도 충족시킬 수 있다는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이 규제되고, 결과적으로 현재 추진중인 주민 편의시설 조성사업은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광주시 및 환경부와 위치 변경 등을 놓고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시의회 복지재단 행정사무조사 보류

인사위 결과 보고 조사권 결정

광주시의회가 각종 비리가 드러난 광주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광주시의 감사를 통해 충분히 의혹이 확인됐고, 관련 처벌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박미정 의원)는 7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사무감사에서 총체적인 문제가 있어 행정사무조사권을 발의했고, 집행부에 감사를 요구해 모든 문제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오는 10일 복지재단 인사위원회 결과를 보고 조사권 발의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광주시의 감사를 통해 시의회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모두 사실로 확인된 만큼 ‘특별 감사’인 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추가로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복지재단에 대해 특정 감사를 실시, 6건을 시정하도록 하고 직원 2명 계약 해지·5명 훈계·1명 경고 조치했다.

감사 결과 겸직 근무 위반, 임기제 계약직 채용 규정 위반, 인사 규정 위반, 불법 임대 등의 위반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행정사무조사는 의회가 자치단체 사무 중 특별 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행정사무감사와는 별도로 실시되는 특별 감사다.

광주시의회는 사의를 표명한 장현 대표이사를 비롯해 인사 규정을 위반해 채용된 사무처장, 재단 산하 빛고을노인강타운 분부장 등에 대한 인사위원회 결과를 보고 행정사무조사를 할지 판단할 방침이다.

시의회는 21일 의회에서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토론회, 이어 시민공청회를 열어 재단 쇄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의회 박미정 위원장은 “복지재단 문제는 단순히 감사에서 드러난 것이 전부는 아니다”며 “이번 기회가 광주복지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지 그 첫발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시간 확대

광주시는 7일 “올해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과 시간을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맞벌이 부모 등의 가정에 홀로 남겨진 아동을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1대 1로 안전하게 돌봐주는 프로그램이다. 아동의 놀이 활동은 물론 급간식, 보육시설 등·하원, 안전 관리 등을 지원한다. 특히 기존 월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만 대상에 포함됐지만, 올해부터는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 대책에 따라 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된다.

신청 대상은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장애 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이다. 시간제서비스 이용료는 기본 1시간당 9650원이며,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료의 최대 8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각 자치구 서비스제공 기관이나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단(1577-2514)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 동구(062-234-5801), 서구(369-0075) 남구(351-4146), 북구(461-1337), 광산구(959-9336) 등 자치구별로 문의해도 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지난해 농약 허용 기준 초과 농산물 1t 폐기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7일 “지난해 농산물 안전성 검사결과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23건, 약 1t을 압류·폐기 처분했다”고 밝혔다.

안전성 검사는 서부·각화도매시장으로 반입된 농산물 1798건과 로컬푸드, 마트, 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농산물 1085건 등 총 2883건을 대상으로 했다. 잔류농약 208항목을 검사한 결과 모두 23건(부적합률 0.8%)이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부적합 농산물은 시금치·부추·열무·얼갈이배추·치커리·당귀잎·아욱 각 2건, 총각무·쌈추·상추·깻잎·유채·숙

각·취나물·숙은 무·쪽파 각 1건이다.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은 대부분 살균제와 살충제로 클로르피리포스·카다사포스·프토사이미돈(각 3건), 다이아지논·디니코나졸·인독사카브(각 2건) 등 모두 13종이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부적합 판정된 농산물을 즉시 전량 압류·폐기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했다. 해당 농산물 생산자에 대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과 함께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에 1개월간 출하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태양발전소 분양

동·식물 재배사(건물 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 50KW 월 135만원 예상

땅+건물+태양광 년12% 수익

자금대출가능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분양지역: 영광,영암,완도,진도

100년 기업

정직 · 신뢰

(주)해가온 개발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뽕뽕~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